

# 정 하 봉

## KWC 심사위원단 부대표

글 최훈 본지 발행인

해마다 6월이면 국제적 와인 컴퍼티션인 Korea Wine Challenge(이하 KWC)가 개최된다. 세계 유수의 와인 챌린지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의 이 와인 챌린지가 자리 잡고 있다. 2005년부터 시작해 올해 17번째 이 벤트가 예정되어 있다. 실은 이 행사가 국제적 와인 컴퍼티션이기에 매우 신중하고도 철저한 준비가 전제된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은 능력 있는 심사위원(Jury)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2005년 처음 야심 차게 KWC를 준비했을 때, 우리들한테는 신뢰받을 수준의 심사위원이 부족했다. 해서 결선은 국제적 와인 전문가 5명과 국내 유수의 소믈리에 및 와인 카너서로 혼합팀을 구성해 약 5년간 지속했다. 2010년경부터는 자생력이 생겨 더 이상 해외 심사위원을 초청하지 않고 순전히 우리나라 심사위원들로 KWC의 예선, 결선 모두를 치루었다. 그만큼 챌린지는 엄격하고도 권위를 전제하고 있다. 해서 KWC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는 소믈리에 및 와인 전문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고 있다.

이번 초대석에 자리한 정하봉은 바로 이 KWC 심사위원단의 한 멤버로 해마다 참가해 자신의 재능을 심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그의 역량을 인정받아 KWC 심사위원 부대표의 지위를 맡고 있다. 오는 6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제17회 KWC에서도 주도적인 심사위원의 한사람으로 그의 활약이 예약되고 있어 짧은 그의 이력을 소개하는 것이다.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전 세계 최고의 호텔기업 메리어트 호텔에 입사하여 음료를 총괄하는 소믈리에로 일하면서 2010년 칠레에서 개최된 제13회 세계 소믈리에 대회에 한국인 최초로 출전한 국가대표 소믈리에가 되었다. 15년 넘게 꾸준한 소믈리에 활동으로 한국의 와인 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인정받아 2017년 프랑스 샴페인 협회로부터 슈발리에 기사 작위와 2019년 보르도 협회로부터 코망드리 기사 작위를 받았으며, 와인의 역사와 문화, 철학을 공부해 온 와인 인문학자로 와인을 통해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대중들에게 전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 자전적 Profile에서



패활한 개성, 그리고 근면과 열정을 토해내면서 와인 업계에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학구적 성과로 Ph.D(호텔경영)를 얻고 있으며 와인 관련 몇 권의 저서가 있다. 오는 9월 중순 오픈 예정인 세계적 호텔 그룹인 프랑스 Accor 그룹의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의 임원으로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

# KWC 수상 와인의 스티커 이제 새로이 입점 요건의 하나가 되고 있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Wine Review>

올해 6월 21~30일기간, 서울에서 국제적인 와인 컴퍼티션인 Korea Wine Challenge(이하 KWC)가 개최된다. 2005년 처음으로 제1회 KWC를 개최한 이래 지난해까지 모두 16차례 KWC이벤트를 치렀다. 한 가지 내세울 일은 KWC가 국제적 와인 챌린지로 자리잡았고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적 와인 컴퍼티션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이 대회에 대한 신뢰와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이벤트에 출품된 와인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통해 최종적으로 질적 수준을 평가할 때 최소 네 사람의 심사위원이 나름대로 평점, 그리고 최종적인 조율을 거쳐 질적 수준이 결정되는 관행을 지키고 있다.

원래 KWC를 시작할 때 내세운 슬로건이 있다. 바로 “우리들 입맛에 맞는 와인을 우리 손으로 고른다”는 것이다. 와인의 맛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대체로 함축적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들에 다음 사례들이 있다.

- 지나치게 거칠고 센 와인(harsh and strong)
- 너무 센 신맛의 와인(sour, or unpleasant acidity)
- 떫거나 쓴맛의 와인(astringent and bitterness)
- 상큼하며 기분좋은 와인(crisp, rich and round)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는 평균치의 와인 맛은 약간의 감미가 있고 유순하며 알맞은 탄닌의 맛을 보일 때다. 우리나라 유수의 KWC 심사위원이 평가한 와인은 곧 한국 사람 평균치 값의 와인이다. 이런 감각적 기준과 레이팅 시스템에 의해 수상여부 및 등급이 정해진다. 이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곧장 KWC 스티커이다. 여태까지 이 스티커 부착을 조금은 등한히 했다. 이유는 유통업체나 소비자들의 관심이 다소 느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소비자가 KWC에 대해 높은 이해도와 신뢰도를 보이면서 KWC 수상 스티커 미부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런 사정에 따라 점차 스티커 부착의 KWC와인을 입점하고자 하는 추세가 번지고 있다. GS25 리테일, Exper 와인샵, 푸르뒤앵, 알리고페, 롤링 힐스 호텔 등 여러 와인점에서 고객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스티커를 붙인 KWC 수상 와인을 우선적으로 입점할 것임을 내비추고 있다. 주최측인 <Wine Review>도 와인점포, 그리고 KWC 심사위원의 협력을 얻어 소비자한테 KWC 수상와인을 알리는 캠페인을확산시키고 있다. 분명 KWC의 수상 와인은 어느 것보다 우리들 입맛에 맞는 와인이다. 스티커 첨부 확산추세는 KWC의 새로운 발전이다. ㉮

